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은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8일)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내륙철도 해인사역 배제 효용성 외면 부당 결정”

해인사 · 합천사암련 등 13일 기자회견서 성토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국토부가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사업 계획에서 해인사역이 배제된 것과 관련,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재조사를 토대로 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인사역 예정부지에 따른 지리적 이점과 가치, 이용인구수 등을 토대로 한 효용성과 경제성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합천 해인사와 지역사암연합회, 해인사역사추진주민위원회는 1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당국과 국회, 지자체에 대해 “해인사역 선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의 노선 및 역사 선정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합천군을 경유하는 지역에 ‘해인사역(합천군 야로면 일대)’이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해인사역사추진위는 촉구서를 통해 “해인사와 가야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위시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통접근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해 왔음을 보면,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해인사역’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그동안 국민적 이용에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해인사가 보유한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일원의 광활한 산림과 토지, 수많은 불교성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인사의 재산권 행사와 종교활동을 제약해 왔고 해인사는 국민이용이라는 공익적 이유로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해인사역’을 배제한 것은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중적 행정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은 ‘해인사역 선정의 재검토 촉구와 관련,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이점과 가치, 유동인구와 거주인구 등 역 선정의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임을 명확히 했다.

해인사역사추진주민위원회 도감 진각 스님은 “평가초안에서 역사로 선정된 곳 역시 해인사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인사역사 추진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는 명칭과는 무관하다”며 “국토부가 세계적인 지명도와 이용도가 높은 세계문화유산지역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무시한 채 지역개발업자의 이해만을 반영해 합천읍내 인근으로 부지를 선정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수요저조로 인한 공동화 등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함안역’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스님은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노선의 정거장은 인접지자체의 교통연계와 이용편익까지 고려하는 광역적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진위 촉구서에 따르면 해인사역 부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IC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고령IC에서 5분거리, 거창IC에서 15분거리다. 합천군은 물론 인접 지자체인 거창군과 고령군까지 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셈이다. 또 외지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역인지도와 교통연계성, 경제성과 발전성을 두루 갖춘 해인사역이 남부내륙철도의 합천지역 통과구간의 가장 합리적인 정거장이라는 주장이다.

강행시에는 공원지정 해제도
지리적 이점 · 가치 반영돼야
“전면적인 재검토 시급” 주장

진각 스님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국책사업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며 “현재 이 같은 입장을 담아 전면 재조사와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도 촉구서에서 “국토부가 중요한 국책사업을 초안 그대로 기만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토부가 져야할 것”이라며 “해인사 또한 국민적 이용 때문에 해인사의 많은 유물과 산림, 토지를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으로 무상 제공하면서 각종 규제를 당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위는 △청와대 소관 수석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노선과 정거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나설 것 △국토부와 기재부는 용역회사의 연구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인사역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세계문화유산과 가야산국립공원에 대한 원활한 국민적 이용을 위해 해인사역 유치에 적극 나설 것 △경남도와 합천군도 소극적 행정과 국소적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의 향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눈 치우며 번뇌도 쓸어낸다 새해부터 연일 눈이다. 1월 12일 오후부터 서울에 내린 대설에 조계사 사부대중이 제설 울력에 나섰다. 스님은 도량에 하얗게 내린 눈을 치우며 마음의 번뇌도 쓸어낸다. 부처님 제자 주리반타가가 그랬듯이. ‘쓸고 털리라.’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南北불교계 새해 서신 올해 첫 단절

매년 새해 남북 불교계가 주고받은 서신 교류가 올해 처음으로 단절 위기에 처했다. 새해 1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조계종과 천태종 등 남측불교계의 새해서신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 대북교류활동을 전개해 온 종단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새해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해 왔다. 불교계 대북교류단체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서신 교류는 남측 불교계가 메일 혹은 팩스를 활용한 새해서신을 발송하고 조불련이 이에 1월 1일자 서신으로 회답하는 형태다.

그러나 올해 조불련은 1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남측 종단의 새해서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무했던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최악으로 치달아 온 남북관계를 되짚어 볼 때 올해 새해서신 교류 단절은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새해서신은 있었지만, 종단 대표자와 단체 대표자 명의로 각각 발송된 기존 관례와 달리 종단명만이 기재된 무성의한 서신 형태로 발송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불련의 올해 새해서신 미발송이 남측 정부에 대한 북측 기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이자, 남북 정부간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는 불교계 뿐 아니라 이웃종교를 포함한 30여 곳의 민간교류단체들 중 단 한곳도 북측 교류단체의 새해서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정부간 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올해 남북불교계 교류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북한 사찰 및 문화재 복원 · 조사사업, 천태종의 의천국사 다례재 등 그동한 불교계가 추진해 온 남북불교교류 사업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北, 1월 중순까지도 무응답
관계자들 “초유의 일” 주목
올해 남북관계 난항예측도
2월 한미 군사훈련 기폭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은 “지난 세월동안 불교계는 정부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교류는 있었는데, 올해는 새해서신조차 오지 않는 등 교류의 문이 완전히 닫힌 채 최악을 상황을 맞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보이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5일부터 진행 중인 제8차 당대회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이전 시기로 되돌아가 관계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남북관계의 회복이나 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올 2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교계 한 실무자는 ”지난해부터 북측은 일관된 기조로 남측정부를 향해 판문점 회담 당시 체결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정부 역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인성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혜·자비 바탕을 키웁니다.
내일 인재 **참 불자**를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부산은행 140-01-002189-8 농협 301-0278-6185-41

어린이 • 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명	정관 혜총
고문	정여 철오 지현
총재	지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총재	운성 덕진 지광 심산 성행
추진위원장	신공(이사장)
추진부위원장	정무(상임이사)
추진위원	도제 탄경 혜타 지우 능후 효산 명원 현수 혜성
사무총장	미수
지역후원관리	김미경 김상희 김용숙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이현미 홍보부 손무늬 모금부 박소정

사단법인 동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3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